

문화예술 지식 콘텐츠 현황과 전망

최근 수년 전부터 국내 언론매체들에서는 우리나라가 'IT 강국', '인터넷 선진국'이란 말이 가끔씩 나오곤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세계 최고의 고속 케이블망을 설치했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돼 있다는 데에 기인하고, 그 케이블망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하고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발달된 기술로써 항상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각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야가 다르겠지만, '문화의 시대'라는 21세기에 특히 대중문화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정보 콘텐츠들을 찾아보자.

글_이상면 동서문화콘텐츠연구소장

연극이나 영화·음악·무용·미술 분야에 대한 지식은 국내 웹사이트들에서 충분히 구축돼 있고, 문화예술 정보는 원활히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인터넷을 뒤지는 사람은 그 빈약한 콘텐츠 때문에 곧 실망하게 될 것이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IT 강국'이란 말이 무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만큼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 콘텐츠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미발달돼 있다.

필자는 여기서 지식과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정보'란 어떤 행사나 인물 및 단체, 용어에 관해 간단한 사실을 전달해주는 것에 비해, '지식'은 이런 정도를 넘어서 더 충실한 내용물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물은 전문가에 의해 쓰여져서 정확성과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명료한 설명이어야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 더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들의 '지식 콘텐츠'이다.

빈약한 문화예술 지식콘텐츠

이렇게 정보와 지식을 나누어서 문화예술 웹콘텐츠들을 살펴볼 때 문화예술 정보는 그래도 상당히 제공되고 있는 편이다. 기존의 웹사이트로는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컬처넷21(www.culturenet.or.kr)이 주로 공연·전시·음악회 등과 같은 문화행사 및 공간,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인 한국문화정보센터의 홈페이지(www.kcis.or.kr)는 국내외의 문화공간과 예술단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담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정보를 찾지 말고 내용있는 지식 검색을 해보자.

실례로 최근 성황리에 전시회를 했던 샤갈(Chagall)이란 화가가 누구인지, 혹은 현재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의 원작이 무엇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혹은 일본의 유명한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가 누구인지 인터넷에서 알아볼 수는 없을까? 이처럼 샤갈에 대해 좀더 알고 전시회를 가고

싶은 사람이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 제목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공연을 가기 전에 원작자와 내용은 무엇이고, 뮤지컬 연출자는 누구이고, 뮤지컬 공연의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공연 관람을 가지 않더라도 호기심 삼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공연비평을 써야 하는 기자들 같으면 속히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 것이다.

영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 같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감독의 생애와 작품, 그의 영화 스타일 등에 관해 조금 더 알고 싶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 대학도서관까지 갈 시간적 여유는 없고, 대학도서관에 가봐야 예술 분야에서 충실한 화가나 감독 사전이 있다는 보장도 없다. 요즘은 인터넷을 뒤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국내의 문화예술 웹사이트들에서 제공해주는 지식내용은 충실하지 않다.

일단은 누구나 국내의 대표적인 지식검색 웹사이트들인 네이버(naver.com)나 파란(paran.com), 혹은 엠파스(empas.com)에서 샤갈/지킬 박사/구로사와 아키라를 찾아볼 것이다. 이들 웹사이트에서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씩 들어있으나, 네이버와 파란에서는 화가/감독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는 않고, 다른 웹사이트들을 계속 찾아볼 수 있게 제시돼 있다. 그래도 엠파스에는 이들의 생애 설명과 더불어 작품들이 열거돼 있고, 작품들을 하이퍼링크로 들어가면 간략한 설명이 나온다. 하지만 외국어 표기(작품명/인명/지명)는 종종 정확하지 않으며, 사진 자료는 거의 없으며, 부정확한 설명도 있다.

물론 네이버나 파란, 엠파스는 모두 백과사전식의 지식검색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신뢰할 수 있고 충실한 작품설명에 있는 지식은 어디서도 건져낼 수 없다. 다시 구글(google.co.kr)에 가서 위의 주제어들을 입력하고 다른 웹사이트들을 뒤지면 자꾸 책 광고만 나온다. 이처럼 예술 분야의 웹사이트에서는 전문가들이 문자 설명과 영상을 이용해 정확성 있고 알기 쉬우며 멋진 디자인으로써 만들어놓은 흥미로운 지식

공간을 찾기 힘들다. 요즘은 어려운 법률이나 의료 같은 분야의 지식콘텐츠들도 웹사이트에서 제시되고 있어서 대도시에 살든 산골·어촌 마을에 살든 개인 컴퓨터를 통해 일반인들도 기본적인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유독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 전달은 매우 낙후돼 있다.

한국식 문화 투자의 맹점

그 원인은 문화예술 전공자들의 무관심 때문이고, 정부 관련기관들의 무관심도 문제이다. 국내의 예술이론(연극학/영화학/미술사학 등) 전공자들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지식을 전달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고, 디지털 매체에 대해 알고자도 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서양의 많은 대학 교수들은 자기 전공지식에 관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전세계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Chagall이나 Kurosawa Akira, 혹은 더 나아가 Shakespeare, Goethe, Mozart를 구글(google.com)에서 검색해보면 곧 알 수 있듯이 서양 웹사이트들에 수록된 연극·영화·미술·음악에 관한 자료와 지식내용은 너무 많아서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디지털 기술과 매체가 지식 전달에서 혁명적 발전을 가져오며 새로운 구텐베르크 출판문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말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정보는 시공간을 초월해 전지구 지역에서 개방적이고 동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디지털 기술은 주로 전자상품 생산으로 연결되고, 문화예술 분야의 지식콘텐츠 구축과 연결돼 있지 않다. 정부의 교육부나 문화관광부는 이러닝과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지만, 문화예술 지식콘텐츠 구축사업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으며, 문화콘텐츠진흥원(KOCCA)은 대중문화(게임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캐릭터산업 등) 상품의 제작과 교육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문화예술 지식은 고급문화의 교육과 전달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중 문화 상품의 생산을 위해서 근간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도,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식이 정보화되지 않고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나무에 물을 주지 않고, 열매만 따먹고 싶어하는 '한국식 문화 투자' 방식의 맹점이 여기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지식 검색을 위해 유익한 웹사이트 두 개를 들 수 있다. 그것은 문예진흥원에서 수년 전에 구축해놓은 '문화예술정보서비스(www.artsonline.or.kr)'와 한국문화정보센터(KCIS)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 지난해 12월에 개장한 웹사이트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www.culture-arts.go.kr)'이다. 문예진흥원의 웹사이트는 문화공간과 단체 안내와 전통문화 및 공연 미술 분야의 지식정보를 갖추고 있는데, 특히 미술쪽 콘텐츠가 많아서 화가 500

인의 사이버 갤러리도 있으며, 공연에는 연극대본과 전통연희의 영상자료가 있다.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www.culture-arts.go.kr)

문화정보센터의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www.culture-arts.go.kr)'은 거의 모든 예술분야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며 긴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모든 예술 분야를 망라해 구축돼서 연극/음악/무용/영상/건축/문학/미술/디자인 지식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작품·공간 및 예술단체에 관한 지식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어서 현재까지 열린 문화예술 웹사이트 중에서 최대 범위에 최다의 지식정보량을 담고 있다. 더구나 중앙 상단의 메뉴 가운데 VOD극장에 들어가면 동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특히 공연예술인 연극·무용과 영상 분야에서 이런 자료는 매우 유익하다.

연극에서는 현대극과 전통연희 등에 관해 찾아볼 수 있으며, 음악에서는 현대 음악과 전통음악(정악/의식음악)에 관해 찾아볼 수 있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한 장 내외의 설명과 영상/동영상 자료가 첨가돼 있으며, 아래쪽에는 참고문헌과 링크할 곳을 제시해준다. 게다가 교육 부분도 있어서 표지 화면의 좌측 하단에 문화예술아카데미(culture-arts.go.kr/edu/index)를 열면 교육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실례로 상단의 문화예술교실에서 연극/음악/영상 교육에 있는 연극/전통연희에 가보면 탈춤 동작을 연습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올려놓아 실제 교육 현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연극·음악·건축 분야에는 20세기 이전의 전통예술 부분(탈춤, 정악, 불교건축 등)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미술 분야에는 이 부분이 없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웹사이트는 한국 문화예술에만 치우쳐 있고, 서양 문화예술에 대한 설명과 자료는 결핍돼 있다. 아마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것 같은데, 세계 문화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예술 부분이 꼭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지식정보 웹사이트

제작기관	웹주소	분야	특징
문화정보센터 (문화관광부)	www.culture-arts.go.kr	모든 예술분야 지식·정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문예진흥원	www.artsonline.or.kr	전통문화 공연 미술 문학 문화공간·단체 정보	화가 500인 소개 사이버 갤러리

공연예술 분야의 콘텐츠 - 연극 무용 음악

연극·무용·음악 장르를 총칭하는 공연예술 분야의 지식정보는 정보 콘텐츠는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 것에 비해 지식 콘텐츠는 미약하다. 그것은 아무래도 수익성 여부로 인해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 같다. 공연정보 웹사이트들은 공연 일정과 극장 안내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티켓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또한, 이 웹사



뮤지컬 '노들담의 곱추' (좌)와 재즈 연주회

국내 공연정보 웹사이트

OTR (Our Theatre Review)	www.otr.co.kr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연희
(주) 블루아트센터	www.blueartcenter.com	이벤트 연극 뮤지컬 클래식 대중음악
(주) 아트터치 '예술과 디지털의 만남'	www.arttouch.co.kr	연극 무용 공연 및 미술전시회

국내 연극 지식 웹사이트

정신문화원	http://koreandb.kdaq.empas.com	한국학 지식 웹사이트
(주)지식발전소	/life/mask	탈춤 설명
문화재청	www.ocp.go.kr	'중요무형문화재' 23개 탈춤 설명

외국 연극 지식 웹사이트

Theatre History	www.theatrehistory.com	세계연극사
Jack Wolcott's Theatre History on the Web	http://www.videoccasions-nw.com/history/jack.html	세계연극사
The WWW Virtual Library Theatre and Drama	http://vl-theatre.com	희곡작품 극단 전문서 교육기관 링크

국내 영상예술 정보 웹사이트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한국영화 산업통계 자료
영상자료원	www.koreafilm.or.kr	한국영화 자료 및 설명
영화제작자 커뮤니티	www.filmakers.co.kr	영화 제작 현황 안내 및 국내외 시나리오 제공

외국 영화 지식 웹사이트

Tim Dirks's Film History by Decade	http://www.film-site.org/filmh.html	세계영화사
strictly film school	www.filmref.com	감독 작품 비평
Online Journal 호주 멜보른대학 영화학과 지원	www.sensesofcinema.com	감독
Theoretical Approaches to Film	http://mentalsoup.net/jelkins/theory.shtml	영화이론 관련 정보와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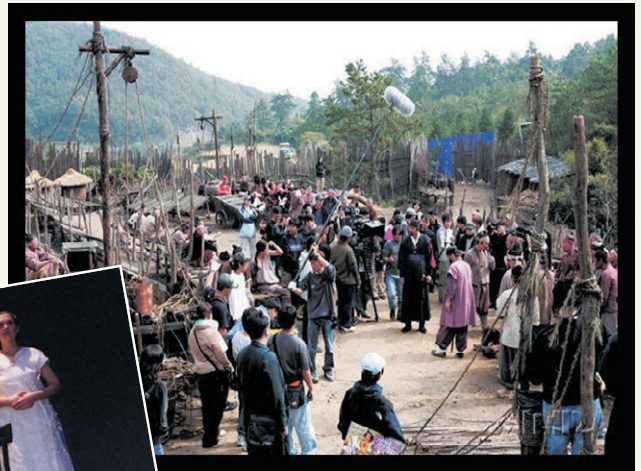


뮤지컬 '그림일기속의 내친구들'

2004년 12월 17일
뉴욕 브로이웨이에서 공연된
한민족 분단의 아픔 김영순 작 · 연출



2004년 11월 29일 밤 파리 도심 개선문 인근의 살롱 오슈에서 열린 '한국 문화 · 관광의 밤' 행사에서 '난타' 공연



'탈의 누' 촬영현장과 클라이맥스 장면 사진 (www.film-makers.co.kr)



'탈'을 촬영하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www.sensesofcinema.com)

〈위〉 김정희의 歲寒圖(정신문화원 웹사이트)
 〈가운데〉 이정의 山水圖
 〈아래〉 김응환의 금강산 連珠圖

이트들은 해외에서 공연된 한국 문화예술 소식을 따와서 전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내용, 즉 공연물 대본과 작가·연출가·배우·무대미술·비평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웹콘텐츠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전통연극(탈춤)이나 전통음악(국악) 분야는 정신문화원에서 본래 '디지털 한국학'이란 명칭으로 만들어 놓았고, 지식발전소(empas)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지식서비스(<http://koreandb.kdaq.empas.com>)'가 있다. 음악이나 무용 전문의 웹사이트는 없어서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여기서도 서양 극작가나 작곡가에 대한 지식은 없으니 모차르트나 베토벤 등에 대한 지식을 얻기는 어렵다. 참고로, 서양에서 만든 연극 지식 웹사이트 몇 개를 제시한다.

영상예술 분야의 콘텐츠 -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TV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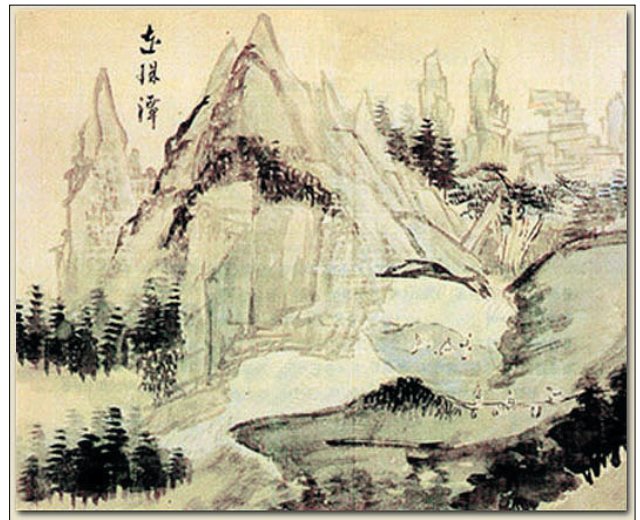
영화 분야에서도 영화 상영 정보를 주거나 티켓 판매를 대행하는 웹사이트들은 여러 개 있다(참조, www.cineseoul.com, www.maxmovie.com, www.cinecine.co.kr, <http://movie.hanafos.com>, www.nkino.com 등). 그러나 영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은 별로 없다. 한국영화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홈페이지 안에서 한국영화 감독과 작품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간단한 정보 제공에 불과하므로, 위에서 말한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더 낫다. 그 외에 영화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영화인들(감독 스태프 시나리오 작가)이 함께 만든 웹사이트(www.filmmakers.co.kr)는 현재 제작 중인 영화에 대한 정보와 국내외 영화들의 시나리오 대본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도 외국에서의 현황을 비교해보기 위해 몇 개 웹사이트들을 소개한다.

미술 분야의 콘텐츠

미술 분야도 공연·영상예술과 마찬가지로 지식 콘텐츠가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으므로, 현재는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의 미술 항목을 참조하고, 화가 검색은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화가 500)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전미술(古美術)에 대해서는 정신문화원-엠포스의 '한국학지식서비스'에서 충실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 인터아트코리아(InterArtKorea)에서 만든

국내 미술 관련 웹사이트

정신문화원 (주)지식발전소	http://koreandb.kdaq.empas.com/culture/oldpaint	한국학 지식 웹사이트 옛그림에 대한 설명
Inter Art Korea	www.artin.com	미술가와 작품 소개 및 미술품 거래



웹사이트(www.artin.com)는 미술품의 거래를 위해 주로 당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외국의 미술 관련 웹사이트에서는 화가의 이름들을 직접 구글에서 찾아 들어가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실레로 세잔, 고흐, 피카소 등을 영문으로 입력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웹사이트들이 있으며, 이들의 그림 사진들도 올라가 있어서 설명과 함께 읽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미술 위주로 연극영화에 대해서도 링크 위주로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곳도 있으니 알아둘 만 하다(www.zeroland.co.nz).

이렇게 국내의 문화예술 지식과 관련된 웹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속히 지식콘텐츠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의 문화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양 예술에 관한 웹콘텐츠가 속히 구축돼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한류 붐에 편승해 한국 문화예술을 제대로 설명해주려면 한국 문화예술을 영어/일어/중국어로 소개하는 것도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